

출사표

출사표란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촉나라의 제상 제갈공명이 유비의 유언을 받들어 군사를 끌고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는 날 아침 황제 앞에 바친 글입니다. 출사표에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각 분야의 현명한 신하들을 추천하며, 황제에게 올리는 간곡한 당부의 말이 담겨 있어 중국 3대 명문 중 하나로 꼽히며, 예로부터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는 충신이 아니라 하였습니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선후배 여러분!

회원번호 56번 이오순이 전쟁터로 떠나는 제갈공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KLPGA 수석 부회장 출마의 변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1990년 프로에 입문하여 26년 동안 협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동안 선수로서 상금왕, 신인상, 시니어 부어 포함 13승을 했고, 협회 교육위원, 상벌위원, 시니어분과 부위원장으로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창립 이래 지난 35년 동안 절제,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 발전에는 협회를 이끌어 주신 회장 및 부회장단, 이사진운 포함한 임원진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하고 소홀히 여기며 회생을 강요하기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들이 어렵게 내는 회비의 소중한 가치를 문 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보편적 복지에 눈을 돌려 국민들의 기 초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고, 제가 지난 26년 간 속해있던 우리 협회는 그러한 노력에 소홀했습니다.

회원번호 56번 이오순은 협회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협회의 구성원으로 담없이 회생을 해온 일반회원 여러분들의 생활상의 복지를 증진 시키위해, 침묵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입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회원 여러분!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눈을 가진 잠자리는 무려 3만 개의 혼눈이 모여야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임원진들만의 작은 눈이 아니라 2,084명의 회원들의 눈을 모두 모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나아 갈 길을 밝히겠습니다.

스윙머신과 같은 정교하며 정확한 스윙으로 골프역사상 가장 공을 잘 친 멘호건은 “두 손은 찬란을 펼 뿐, 클럽을 휘두르는 것은 팔이다. 그리고 그 팔은 몸통에 의하여 휘둘러진다”라

고 했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몸통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임원진과 한마음 한
뜻으로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고 한국 여자프로골프와 협회의 발전
을 위해 헌신 하는 두 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이 오 순 